광주시청, 전국체전서 '육상 명가' 이름값 했다

금 5·은 3·동 2 등 총 10개 메달
1600m혼성계주 한국신기록 수립
남자 200m·400m계주 대회신기록
4관왕 고승환 등 다관왕 7명 배출

광주시청 육상팀 심재용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이 지난 16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끝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광주시청 육상팀이 지난 17일 경남 김해에서 막을 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육상 최강팀' 자존심을 지켰다.

1600m혼성계주 한국신기록과 남자 400m계주·200m 대회신기록 수립을 비롯해 고승환 등 다관왕 7명을 배출하고 400m 계주 4연패 등 다연패도 5개를 작성하는 풍성한 기록을 남겼다.

광주시청은 이번 체전에서 지난해 체전(금 7·은 1·동 1개)보다 금메달 숫자는 줄었으나 총 메달은 1개가 더 늘었다.

특히 4관왕 1명, 3관왕 1명, 2관왕 5명 등 다관왕을 무려 7명이나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승환이 4관왕(200m·400m 계주·1600m 혼성계주·1600m 계주)을 달성하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모일환은 3관왕(육상 400m·1600m혼성계주·1600m계주)에 올랐다.

김국영(400m계주·1600m계주)과 김태효(400m계주·1600m계주), 이재성(400m계주·1600m계주), 강의빈(1600m계주·1600m혼성계주), 장지용(1600m계주·1600m혼성계주)은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5개의 다연패와 한국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3개도 일궜다.

김국영·김태효·이재성·고승환이 호흡을 맞춘 남자 400m계주에서 38초86의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4연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104회 체전에서 김태효·김국영·강의빈·고승환이 세웠던 대회신기록(39초27)을 0.41초 앞당긴 기록으로, 한국신기록(38초68)에 0.18초 부족했다.

고승환·한정미·강다슬·모일환이 뛴 1600m 혼성계주에서는 3분25초34의 한국신기록(종전 3분26초56)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당초 혼성계주 멤버로 준비했던 이민정이 부상을 입으면서 광주시청은 고민 끝에 강다슬을 투입했다. 아킬레스 부상이 있던 한정미는 주종목인 400m를 포기하고 계주에 올인했다. 한국신기록까지는 욕심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악조건을 만난 선수들을 더욱 똘똘 뭉쳤고 결승에서 한때 2위로 뒤처졌던 레이스를 역전시키며 우승과 함께 한국신기록까지 작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남자 200m에 출전한 고승환은 20초51의 대회신기록(종전 20초55)을 갈아치우며 2연패를 작성했고, 함께 출전한 이재성도 20초53의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400m에 나선 모일환은 46초57의 개인신기록과 함께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고승환·이재성·모일환·장지용이 호흡을 맞춘 남자 1600m계주에서는 3분10초8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2연패 쾌거를 거뒀다.

은메달은 3개를 기록했다.

강다슬이 여자 100m(11초99)에서, 정혜림이 여자 100m허들(13초48)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올해 광주시청에 둥지를 틀고 실업무대에 나선 이재성은 남자 200m(20초53)에서 2위를 하며 은메달을 기록했다.

베테랑 스프린터 김국영은 남자 100m(10초43)에서, 장지용은 남자 400m허들(51초81)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강다슬과 정혜림이 아쉽게 은메달을 따는 등 작년보다 금메달 숫자가 줄었지만 대신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 등 기록이 풍성했다"면서 "전국체전으로 올 시즌 일정을 모두 끝냈는데 잠시 쉬었다가 동계훈련을 통해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제35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입장상 수상 시·군 관계자들이 20일 완도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시상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폐막 "내년 영광서 다시 만나요"

22개 시도 선수단 7000명 참가

전남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6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20일 완도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치유의 섬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는 구호 아래 지난 18일부터 3일간 완도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7000명의 생활체육인들이 24개 종목(정식 22, 민속 1, 시범1)에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우의를 다졌다.

지난 18일 개회식 입장식에서는 여수공업고 밴드부의 합주행진을 시작으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 십미(十味)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입장한 여수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신안군과 해남군이 우수상을,광양시·곡성군·목포시·담양군·강진군이 장려상을, 영암군이 스포츠7330상을 각각 수상했다. 참여상인 화합상은 장성군이, 질서상은 진도군이, 응원상은 화순군이, 감투상은 나주시가 각각 받았다. 모범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우수종목단체상에는 전남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정됐다.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진 종목별 경기에서는 광양시가 배드민턴·산악·수영·육상 종합·족구 종합 등 5개 종목에서 우승해 가장 많은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신안군은 바둑·볼링, 해남군은 농구·축구, 화순군은 그라운드골프·탁구, 여수시는 배구·테니스 등 2개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민속경기 줄다리기는 화순군, 시범경기인 파크골프는 장성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생활체육인 여러분들이 한데 모여 화합과 열정으로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기에 이번 제36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37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10월 역사가 살아 숨쉬고 문화가 꽃피는 '천년의 빛'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최동환 기자

웃맨 럭비단, 창단 2년 만에 전국체전 준우승 쾌거

결승서 한전에 14-35 패

지난 17일 경남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럭비 일반부에서 OK 웃맨 럭비단이 준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OK금융그룹 제공

광주 연고 웃맨 럭비단이 전국체육대회를 값진 은메달로 마무리했다.

OK금융그룹 OK 웃맨 럭비단은 지난 17일 경남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럭비 일반부 결승전에서 한국전력(전남)에 14-35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웃맨 럭비단은 이날 결승서 전반 초반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신현민의 킥 득점을 통해 추격에 나섰다.

후반 5분을 남가고 이수평이 이날 경기 웃맨 럭비단 첫 트라이를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공격을 이어가는 등 분전했지만 점수를 뒤집지 못했다.

웃맨 럭비단의 창단 2년 만의 전국체전 준우승 성과는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지난 2023년 3월 실업팀으로 재창단한 웃맨 럭비단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실업팀 상대로도 뒤지지 않는 강팀으로 올라섰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올해 두 번째 해외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기술 역량 발전에 집중했다. 당시 웃맨 럭비단은 일본 럭비 리그원 디비전2 소속 큐슈전력 볼텍스를 비롯해 여러 팀과 합동훈련, 연습경기 등을 통해 선진 럭비를 배움과 동시에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올해 프롭(Prop) 포지션을 보강하며 전력 강화에도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웃맨 럭비단 주장 유기중은 "내년에 더 성장해 한층 더 도약하는 웃맨 럭비단이 되겠다. 다시 한번 최윤 회장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웃맨 럭비단 오영길 감독은 "실업팀으로서 2년 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해 기쁘다. 힘든 훈련 과정을 따라준 선수들에게도 감사하고 꾸준히 럭비단을 지원해준 그룹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오늘 개막

"야구 꿈나무들, 실력뽐낸다."

KIA타이거즈는 제17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21~26일까지 6일간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한다.

호남 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된 지 5년만에 재개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광주 수창초를 포함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14개팀이 참가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우승기와 상품이 수여되며, 2,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을 시상한다. 참가하는 전체 팀에게는 야구 용품을 증정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 수상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한다.

참가팀은 광주 7개 팀(수창초, 서림초, 대성초, 서석초, 학강초, 송정동초, 화정초), 전남 4개 팀(화순초, 순천북초, 순천남초, 무안BC), 전북 3개 팀(진북초, 신풍초, 군산남초) 등이다.

한규빈 기자